

〈제 661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과학기술진흥원

◆ 크리에이터 경진대회 성료



광주과학기술진흥원(원장 윤석구)은 지난 6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12층 국제회의장에서 2021 과학기술크리에이터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광주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과총 광주전남연합회, 광주권 대학 LINC+ 사업단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광기술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했다.

공모 주제는 ▲Creative to Me(학과홍보) ▲Creative to Out(진로홍보) ▲Creative to Us(산업홍보) 등으로,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광주권 대학 LINC+ 사업단별 4팀을 선발하고 한국과총 광주전남연합회 유튜브 채널을 이용,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공개한 뒤 평가를 거쳐 각 부분별 수상자를 선정했다.

광주순환 · 광주순환도로투자

◆ 사랑의 김장 600만원 후원



광주순환 · 광주순환도로투자(대표이사 이영훈)는 지난 7일 광주 남구 김치타운에서 서구 관내 그룹홈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김장 나눔 행사는 '서구민한가족 나눔 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순환과 광주순환도로투자가 600만원을 후원, 서구 내 아동그룹홈 4개소와 장애인거주시설

1개소에 100박스가 전달됐다.

광주순환 · 광주순환도로투자는 2018년부터 그룹홈 아이들과 인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룹홈 김장김치 및 저녁식사, 소원성취 프로젝트, 장애인 목욕서비스, 상생카드를 기부한 바 있다.

이영훈 대표이사는 "그룹홈 아동들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났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들이 자신감을 갖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 크리스마스 기프트 특집 라이브방송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대면보다는 비대면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크리스마스 기프트 특집 릴레이 라이브방송을 신세계 앱을 통해 진행했다.

지난달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겨울 아우터 장르를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목표 대비 120% 높은 실적을 보였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여성, 아동, 아웃도어 장르까지 총 50여개 품목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 탄소중립 실천 '고고' 캠페인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정섭)은 탄소중립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고고 캠페인'을 추진한다.

'고고 캠페인'은 종이와 플라스틱컵 사용을 줄이고 전자문서 보고를 늘리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늘리자는 캠페인으로, '올리고'에는 ▲전자문서 보고 늘리기 ▲모아찍기 일상화 ▲흑백인쇄 일상화 ▲이면지활용 늘리기 ▲개인컵 사용 늘리기 ▲개인 손수건 사용 일상화 ▲장바구니 사용 일상화 등이 있다. '내리고'는 ▲불필요한 대면보고 줄이기 ▲회의자료 최소화 ▲컬러인쇄 줄이기 ▲종이 소비 최소화 ▲일회용컵 줄이기 ▲물티슈 사용 줄이기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 등이 포함된다.

광주은행

◆ 기업문화 '칭찬 릴레이' 우수직원 간담회 개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칭찬 릴레이'에 선정된 우수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은행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이해 상충행위 금지 ▲건전한 회식문화 정착 ▲임직원 간 선물 수수 금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불건전한 사행성 행위 금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총 7가지의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CLEAN7 광은문화'를 바탕으로 윤리경영 실천 강화와 일하기 좋은 행복한 직장의 기업문화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누기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지난 8일 지역 내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곡성공장 인근에 위치한 광산구청과 곡성군 입면사무소를 통해 김장김치 120박스를 전달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는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마련된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이웃사랑 캠페인이다.

기아 광주공장

◆ 광주시와 탄소중립 업무협약 체결



기아 광주공장(대표이사 최준영, 송호성)은 지난 9일 광주시의 2045 탄소중립 걸음에 동참하고자 광주시와 2045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광역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용섭 시장과 박래석 기아 광주공장장이 함께 했으며, 기아 광주공장은 협약식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친환경차 공급 확대 △생산설비의 공정개선으로 기업 RE100 달성 △친환경차 보급 및 확산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방안 모색 △광주형 AI-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협약했다.

이번 협약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고 지역과 환경, 산업이 상생하는 ESG 경영 실천과 친환경차 생태계 조성의 동반성장을 견인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사랑의 선물주머니 제작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지사회장 허정)는 지난 8일 매곡동에 위치한 지사 양리뒤나홀에서 자문위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지역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사랑의 선물주머니를 제작했다.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제작되는 '사랑의 선물'은 매년 적십자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들이 1년 동안 매월 틈틈이 수건으로 제작한 주머니에 김, 멸치,

미역, 핸드크림, 양말, 참치캔 등 12가지 생필품을 넣어 만든다. 이번 행사에서 제작된 사랑의 선물은 1,200만원 상당으로 우리지역 취약계층 3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우영인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장은 “위원들의 정성이 담긴 사랑의 선물이 우리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선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 안내 >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 적십자회비에 참여해 주세요.

집중모금기간 : 2021.12.1 ~ 2022.1.31 / ARS : 060-703-1100

오비맥주 광주공장

◆ 빚고을장학금 1천500만원 기탁



오비맥주 광주공장은 빚고을 장학금으로 광주시에 1천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오비맥주 광주공장 관계자들은 시청을 방문해 이용섭 시장에게 지역 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힘 써달라며 장학금을 전달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오비맥주 조승훈 호남권역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학습 여건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기탁했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과의 상생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오비맥주는 지난 2003년부터 빚고을장학재단에 총 5억3천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한국알프스

◆ ‘6억불 수출탑’ 수상



한국알프스(대표이사 강동완)는 지난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6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수출 유공자 599명에 대한 정부 포상과 1,573개사에 대한 수출의 탑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수출의 탑은 정부가 수출 장려를 위해 1973년부터 수여하기 시작했다.

전년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선정된 한국알프스는 1987년에 설립, 차재전장품, 통신부품, 입력장치, 컴포넌트 등 전자부품산업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국내 토착형 다국적기업으로 국내 생산 및 해외 수출을 통한 지역 발전과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한국알프스는 세계 반도체 수급 어려움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 불안정과 수출입 물류대란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6억3,000만달러의 수출로 고성장의 실적을 달성했다.

호반건설

◆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앞장



호반건설(회장 김상열)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상생형 온라인 쇼핑몰인 '동반성장몰'을 도입했다.

동반성장몰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개설됐으며, 동반성장몰에 입점한 중소기업의 제품은 총 5만개에 달하고, 신용카드는 물론 복지포인트로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도입에 따라 호반건설과 협력사 임직원들은 동반성장몰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호반건설은 임직원들에게 동반성장몰 이용 매뉴얼을 안내하고 전용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 이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디에이치글로벌

2021년 12월8일 수요일 전남일보

독자 브랜드 ‘스테닉’으로 글로벌 시장 도전장

창립 10주년 맞은 ㈜DH글로벌

과감한 투자 최고 생산설비 구축
불량률 1% 이하 탁월한 기술력
3000억원대 매출·수출 확대 노력
‘스테닉 크리스탈 제빙기’ 공략
이정권 회장 “청년들 비전 제시”

2011년 생활가전 부품사업으로 시작해 자체 브랜드 제품 생산까지 광주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는 ㈜DH글로벌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DH글로벌은 2013년 위니아만도의 뚜껑식 김치냉장고 완제품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에어드레서, 비스코프 냉장고 등 대표 생활가전 제품을 수주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지속적인 혁신으로 설립 10년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이정권 DH글로벌 회장은 오는 2022년을 ‘독자 브랜드’ 원년으로 삼고 자체 브랜드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10년만에 3000억원대 매출 달성

DH글로벌은 생활가전 ODM(주문자 위탁 생산)과 OEM(제조사 설계 개발 생산) 전문업체로 에어드레서, 스탠딩 김치냉장고, SBS 냉장고, 빌트인 냉장고, 뚜껑식 김치냉장고 등을 생산하고 있다.

창립 당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내 가전 생산업체들의 구조조정과 도산이 이어지던 시기였지만, 국내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할 때 그 공백을 놓치지 않고 과감한



이정권 ㈜DH글로벌 회장이 OEM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비스코프 냉장고 등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투자로 탄탄한 생산설비를 구축했다.

2014년 김치냉장고 수주를 시작으로 삼성전자와 인연을 맺은 후 2018년부터는 에어드레서와 비스코프 냉장고 등을 잇따라 생산하며 명실상부 삼성의 파트너사로 입지도 다졌다.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규모 생산라인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DH글로벌은 생활가전 영역을 더욱 넓혀나가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스마트팩토리 시범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내부 생산라인의 시스템 설비 자동화를 마치고 생산능력을 30%가량 끌어올렸으며 불량률은 생산공정 기준으로 1%를 밑도는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이러한 남다른 기술력으로 DH글로벌은 지난 2017년 1000억원대 매출을 돌파한 데 이어 2018년 1500억원, 2019년

1900억원, 2020년에는 2700억원을 달성하며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액 역시 크게 증가해 2017년 기준 2억원대에서 2020년 100억원대로 무려 50배가량 늘어났다.

● 독자 브랜드 개발로 ‘제2의 도약’

대기업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독자 브랜드’ 업체로의 변신은 회사의 명운을 걸어야 할만큼 수많은 연구개발부터 인력, 자원이 뒤따라야 하는 쉽지 않은 길이다.

하지만 DH글로벌은 자체 브랜드 ‘스테닉’ (STENIQ)을 도입하고 독자 브랜드 개발 및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테닉 브랜드를 단 첫 제품인 ‘스테닉 크리스탈 제빙기’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business to consumer)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정권 DH글로벌 회장은 “누구나 같



DH글로벌의 자체브랜드인 스테닉 크리스탈 제빙기. DH글로벌 제공

수 있는 길을 가면 성공할 수 없다. DH글로벌이 가진 OEM 최고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투자와 역발상을 통한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며 “내년부터는 자체개발 상품 등 수출을 가장 지향적인 목표로 삼고 다시 한번 도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스테닉 크리스탈 제빙기는 15kg의 대용량에 우수한 얼음 보존 능력, 자외선(UV) 살균, LED 자동 동작인식 시스템 등을 갖춰 업계 최고 제품이라는 자평이다.

DH글로벌의 주특기인 냉장고 발포기술 등을 반영해 냉기보존 면에서도 경쟁 제품을 능가했으며 소비자들 취향에 따라 색상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어 색상을 구성했다.

국내 제빙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을 DH글로벌이 앞장서 ‘Made In KOREA’로 채워 나간다는 각오다.

●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 “비전 보여줄

것”

광주시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도 선정된 DH글로벌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직고용인원은 170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 11월 기준 직고용인원 300여명을 비롯해 도급인원 230여명, 관계사 직원 등 7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역 청년과 여성 등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선과 동시에 공장 환경 개선을 통해 기존 생산공장 등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 DH글로벌 생산인력 중 4년 이상 연속 근무자가 50% 이상으로 다른 제조·생산 업체와 비교해 이직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권 회장은 “살면서 두려운 것이 별로 없었는데, 직원들이 많아질수록 두려움이 생긴다. 이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중압감부터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민들을 매순간 끌어안고 있다”고 밝혔다.

DH글로벌은 오는 2030년 연매출 1조원의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해외 진출과 주식 상장 등 기업 가치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 회장은 “자금이나 인적자원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틀을 깨고 100년 기업을 지향하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 해나갈 계획이다”며 “지역 청년들에게도 비전을 보여 줄 수 있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 알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정 열 총무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541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박양수(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주제: 돈의 흐름과 디지털화폐의 미래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12월 10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을 초청하여「돈의 흐름과 디지털화폐의 미래」란 주제로 제1541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금번 강연은 신뢰와 강제통용 면에서 화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목적이다.

화폐의 본질적 기능은 가격표시 척도이고 교환의 매개이며 가치의 저장 기능이 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 돈을 찍어 시중은행에 주면 대출을 해주고 예금으로 회수되어 지급 준비금을 제외하고 다시 대출을 반복하여 돈을 만들어 내고 신용을 창출한다.

초기 화폐는 물품화폐로(조개.농수산물.도구 등) 금속화폐(금화.은화.통화 등) 10세기 중반은 신용 화폐(지폐.수표.어음 등) 전자화폐는 20세기 후반(IC카드.인터넷캐시 등)으로 진화되었다.

화폐 발행의 주체를 넓게 보면 국가(정부), 민간(은행) 또는 정부가 은행에 위탁 신뢰에 기반(강제 통용, 세금납부수단)에서 사용되도록 하였다.

화폐 관련 신뢰가 붕괴 되는 경우는 과도한 재정지출(전쟁, 대규모 사업등), 화폐가치 하락(인플레이션), 발권 또는 예금을 담당하는 민간(은행)도산 및 사기 등이다.

화폐의 가치를 금과 연계시켜 보전하여 사용하다 보면 거래국 간의 차이 환율제도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 금본위제도를 사용하였으나 무역수지 적자국 디플레이션 발생문제가 생긴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레튼우드 체제(1944)에서 미 달러 중심 통화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이후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급증 등으로 민간부문에서 암호자산인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암호화폐는 믿음이 없으면 사라질 수 있으나 스테이블 코인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의 화폐 또는 실물자산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암호화폐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금융포용, 경제의 디지털화 촉진, 국제결제의 효율성, 플랫폼 및 빅테크 기업 독점력 완화, 민간화폐와 경쟁, 통화정책 유효성 및 통화주권 확보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자는 생각이 나오고 있고 지금 실험단계에 있다.



〈중장년센터 제39,40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지난 8,9일 이틀간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특강실에서 제39,40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직자에게 일 중심의 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참여한 인원 각각 28,30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사무국 일지(12.06 ~ 12.10)

12.06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활성화 운영위원회● 광주청년일경험드림 드림청년 직무역량강화교육	12.08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년센터 제39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광주청년일경험드림 드림청년 직무역량강화교육● 전남지노위 심판회의
		12.09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년센터 제40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12.07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수행기관 회의	12.10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41회 금요조찬포럼● 노사민정 제3차 이행점검

1. 노사 동향

■ 국회, 고용부 2022년 예산안 의결

○ 국회는 12. 3 개최된 본회의에서 2022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을 36조 5,720억원으로 의결

※ 2022년도 예산은 2021년 본예산(35조 6,487억원) 대비 2.6% 증액

- 2022년 고용부 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고용회복·고용안정 지원,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변화 대응, ▲전국민 고용안전망 지속 확충, ▲취업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 ▲안전한 일터 조성 등으로 구성

[참고] 2022년도 고용부 예산 주요 편성내용

분야	주요 내용
고용회복·고용안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취업애로청년 14만명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 (고용유지지원금)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청년센터 지원 ▲ (일자리안정자금) 영세사업주 및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양성) 폴리텍, 특성화고 중심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지원 ▲ (노동전환 지원) 신산업 인력공급과 위기산업 근로자 전직지원 지원제도 신설
전국민 고용안전망 지속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등 60만 명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 명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가사근로자)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취업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3+3 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지원금 확대 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 (고령자)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계속고용 장려금 확대, 계속고용 장려금 확대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예정
안전한 일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투자)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기계 교체 지원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주요 사고 예방품목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 소규모 제조업체, 건설현장 등 안전 보건관리 기술지도·교육 강화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3+3 육아휴직제 : 부모 모두 육아휴직(만 1세미만)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 100%(月 최대 300만원) 지원

■ 양 노총은 노동 관련 입법 촉구 지속

○ 한국노총은 12. 6 성명을 통해 12월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입법을 마무리 할 것을 촉구

- 반면 한국노총은 어느 당이 국회 입법처리를 적극 추진하는지 여부가 향후 대선에서의 정치적 판단을 위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12. 14 국회 인근에서 연내 입법 절차 마무리를 압박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 관련 입법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12. 8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

- 양 노총은 기자회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제도 허용, ▲사업 이전 시 고용관계 승계를 위한 법률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

○ 한편,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는 12. 8 개최되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 성명을 발표

※ 공동 성명 경영계 : 한국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 경영계는 성명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해,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재검토해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

2. 법제 동향

■ 남인순 의원(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2)

- (발의 이유)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출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
 - 그러나 근로자가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 불안정 등의 이유로 배우자 출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존재
- (주요 내용)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게 하고, 사용 연기 또는 미사용은 근로자가 신청

■ 장제원 의원(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2)

- (발의 이유) 최근 서울대 청소 근로자가 교내 휴게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휴게공간 부족 등 열악한 상황에 대한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통풍 및 환기 시설 등이 설치된 휴게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위반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또한 옥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과 샤워 시설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권영세 의원(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6)

- (발의 이유) 현행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이 차별 시정을 요청한 경우 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Ⅲ. 노사 및 법제동향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하고, 확정된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이와 같은 벌칙 부과 이외에 시정명령·구제명령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해당 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거나, 해당 명령의 취지에 맞지 않은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주요 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제도를 현행법에 도입